
제97차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(IATTC) 특별회의 참석 결과

2021. 6.



한국원양산업협회

해외수산협력센터

I 회의 개요

회의명 : 제97차 IATTC 특별회의*

* 영문명 : Inter-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97th Meeting (Extraordinary)

회의 목적

- 열대 다랑어에 대한 추가적 보존조치에 대한 논의

일시/장소 : '21.6.07.(월)~6.10.(목) 오후 23:00~익일02:00 /화상회의

참석자(약 100여명) : 한국, 미국, 일본, EU, 대만, 멕시코, 니카라과 등 회원국(21개국) 대표단 및 CNCP(5개국) 대표단

- 한국 대표단

이름	기관 및 직위	비고
나일강	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주무관	수석대표
김수민	해외수산업협력센터	회의지원
최봉준	원양산업협회	자문
박진석	사조 산업	업계

협력센터 전문관 업무

- 사전문서 검토 및 회원국 제안서 정리, 회의기간 중 회의록 작성

주요 의제

- 과학위 결과 보고 및 열대다랑어 추가조치 권고
- 부유물 세트 금어기 설정
 - 금어기 일수 연장 필요성 논의
- FAD 동시 활성화 세트 개수 제한
 - 생분해성(Degradable) FAD 설치 논의
- 불가항력(*force majeure*)에 의한 면제 요청
- 위성 부이 데이터 수집 및 제출

II 주요 논의 결과

1 과학위 보고서 및 SAC 권고

□ 코로나19로 인한 데이터 수집 한계성

- 2020년 3월 코로나19 발병 이후 FAD설치 및 어획 노력 저하
 - 2021년도에도 비슷한 양상 보임
 - 데이터 왜곡(bias)이 생기기 때문에 2020년 및 2021년도 자원량 평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
 - 오피서버 프로그램 94%로 감소, 코로나19 타격에 비해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
 - 항구 샘플링이 큰 타격 입어 데이터 수집량이 전혀 없음
- 열대다랑어 보존관리 주기 3년 체계 권고(2022-2024), 2019년 데이터 기준
 - 관리 주기 이후 2024년에 자원량 평가 진행 권고, benchmark 평가에서는 2022-2023 데이터 활용할 것
 - (EU) 코로나19로 인한 변수는 이해하나 자원평가를 2024년으로 미루는 것에 대해 우려됨

□ 눈다랑어 자원량 회복 집중 권고

- 부유물 세트 조업으로 인한 눈다랑어 치어 어획이 증가
 - 눈다랑어 어획 사망률에 치명적 영향 끼침

-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자원량 평가 제각각
 - 완전 양호(optimistic) 또는 완전 심각(pessimistic)
 - 눈다랑어에 대한 데이터 속성 및 분석 결과가 뚜렷하지 않음
- 눈다랑어 LPR 초과가능성 10% 이하이며 HCR 또한 10%로 양호함
 - 현재 금어기인 72일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지만 여러 시나리오에 따르면 추가 10일-20일정도 연장 필요할 수 있음
- 현상 유지를 위한 추가 예방적 조치가 필요함
 - 현상 유지 및 어획 노력 감소 등 보이는 현상이 코로나19의 여파인지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파악 어려움
 - 눈다랑어 어획 사망률 원인으로 부유물 세트 설치로 파악되어 부유물 세트 설치 절충안이 필요함
 - 1) 일시적 금어기 연장 -부유물 세트수 제한 (현상 유지 가능할 시)
 - 2) 개별 선박당 활성화 FAD 수 제한
 - SKJ 자원량 평가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작업 필요

2 선망 조업 금어기 설정 및 부유물 세트 설치 제한

- 일본의 경우 선박별 조업 금어기 추가 일수에 대한 계산 포물라를 제안 하였으나 국가들의 소극적 반응으로 CPC별 금어기 추가 일수 계산을 제안함
 - 복잡성 때문에 많은 국가 우려 표명하여 채택 어려워 보임

- 미국의 경우 다양한 시나리오를 참고하여 90일로 금어기를 추가시킬 것을 제안
 - 과학위의 현행 유지 권고에 따라 많은 국가가 72일로 유지하길 원함
 - (일본) 활성화 FAD 설치 개수 감축에 진전이 있을 경우 72일 지지하지만 이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미국 입장 지지함
- 에콰도르의 제안서의 경우 CPC별 2018년 부유물 최대 설치 개수 파악 후 이에 대한 제한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음
 - 6등급 선망선에 대한 조치 강화 필요하며 하위 등급 선망선은 현행 유지를 지지함
 - (멕시코) 최대 설치 수보다 평균 개수로 설정하는 것을 지지함

3 *force majeure* (불가항력)로 인한 면제 요청

- (일본) 불가항력 기준 관리 불투명성 문제 제기, 관련 조항 전체 삭제 요청했으나 회원국 간 논의 후 공평하고 청렴한 관리 방법을 도출할 수 있으면 융통성 있게 조율 가능함을 표명
- EU/COL와 미국 간 해당 조항에 대해 융합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으로 보임

4 FAD 동시 활성화 개수 제한

- EU/콜롬비아(30%감축)와 미국(17-29%감축)은 개수 제한에 대해 절충안 논의할 것

- 생분해성(degradable) FAD로 교체에 대한 논의
 - 생분해성 FAD를 도입하는 것에 다수 회원국 찬성 의견
 - ‘Degradable’에 대한 정의 및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를 당장 조치에 포함하는 것은 어려워 보임
 - 일반 FAD와 어획 능력 큰 차이 없음을 과학위 통해 확인함
 - 지속 가능한 해양 환경 보존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조치로 NGO들 적극적으 환영
- 협약 수역 A2에 대해 조업 분석 필요성 언급
 - 활성화 FAD 설치 이외의 초과 어획 원인 여부에 대해 분석 조사 필요

5

위성 부이

- 위성 부이 정의 설정 대해 다수 회원국 동의하였지만 제안서 안건별 개별 채택이 어려워 좀 더 논의하기로 결정
- (엘살바도르) 위성 부이 재활성화 및 비활성화에 대해 우려 입장
- 위성 부이 데이터 수집 및 제출에 대한 논의
 - (과학위) 옵서버 데이터의 한계 및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을 위해 위성 부이 데이터 수집이 필요함 강조
 - 추가 데이터 수집의 필요성에 대해 몇몇 국가들 회의적 목소리였으나 좀 더 분석 뒤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

6

베네수엘라 제안서 - 추가 예비적 조치

- 눈다랑어 어획 감소를 위한 추가 예비적 조치 제안
- 많은 회원국들이 이의 필요성에 대해 지지했으며 다음번 회의 때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

7

기타 사항

□ 8월 연례 회의 관련

- 회의를 지연시키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하나 비대면으로 진행하자는 의견 수렴 가능성 커 보임

□ 조속한 보존조치 개정을 위해 국가 간 노력 필요

- 현재 제안서가 많고 국가간 이익 차이로 인하여 통합이 어려워 보임
- EU/COL와 미국은 절충안을 도출하여 통합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할 예정
- 캐나다, EU등 IATTC의 국제적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라도 지연 없이 빠르게 진행 시키길 기대
- 8월 연례회의 전 통합된 제안서를 완성 시킬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 및 절충 방안이 필요할 것